

[시티 & 피처]

■ 광주시, 체전맞이 공공미술 프로젝트

광주시가 오는 10월 제88회 전국체전을 맞아 문화수도의 위상에 걸맞은 도시미관 개선을 위해 공공미술 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테마 있는 벽화·빛이 흐르는 거리로

건축물·간판·시설물에 예술 결합

문화수도에 걸맞는 도시미관 조성

공공미술이란 건축물 및 간판, 가로시설물(가로등, 신호등, 벤치 등)에 예술이 결합된 의미로 그동안 예술인들에 의해 신발적으로 추진됐던 것이 최근 그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공공기관의 주도하에 확산·전개되고 있다.

광주시도 문화수도 이미지를 외지인들에게 심어주기 위해 ▲도로시설물 미술작업▲계단 및 응벽 벽화 그리기▲아트 벤치를 이용한 휴식공간 조성▲예술디자인을 가미한 현수막 및 경기장 안내판 제작▲길거리 바닥 그림 그리기 등에 나선다.

시는 우선 도심 미관을 저해하는

전신주, 변압기 등에 '빛'의 이미지를 강조하는 그림을 그려놓을 예정이다. 이 작업에는 작가 20여명이 참여한다.

퇴색한 응벽 및 계단에 조각타일, 사진 등을 이용한 '테마가 있는 벽화' 꾸미기도 진행된다. 여기에는 시민들이 직접 활용한 사진 등을 활용하게 된다.

월드컵 경기장 내 벤치 및 휴지통

을 친근감 있는 디자인으로 페인팅 해 애향심을 심는 작업도 한다.

체전 때면 흥수처럼 거리에 내 걸리는 현수막이나, 경기장 안내판에 예술 디자인을 가미한다.

시는 이를 위해 전국에 공모해 디자인 10개를 선정, 활용할 계획이다.

월드컵 경기장 인근에서 바다그림 대회를 개최해 시민들에게 불거

리를 제공하는 공공미술 이벤트도 연다.

광주시 관계자는 "주 경기장인 월드컵 경기장 일원에 집중적으로 공공미술 프로젝트를 추진해 문화수도로 이미지를 외지인들에게 심어주고, 시민들에게도 쾌적한 도시에 산다는 자긍심을 주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제88회 전국체육대회는 오는 10월 8일부터 14일까지 7일간 월드컵 경기장을 포함한 광주시 일원 66개 경기장에서 16개 시·도 및 해외동포선수단 등 3만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열린다.

/김주정기자 jjnews@kwangju.co.kr



중외공원 생태 숲 길

광주시가 최근 중외공원에 조성한 아기자기한 생태 숲 길.

모두 4억 1천만원을 들여 자연친화적인 목재보행 데크를 설치하고 첨나무, 산찰쭉, 수수꽃다리, 산수국 등, 상시화 등을 심어 생태를 복원했다. 의자와 피크닉 탁자도 배치하고, 190여개의 야간조명도 설치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조대·광주과기원에 신재생에너지 전시관

미래 에너지를 한눈에 볼 수 있는 도로 홍보관 개요, 솔라시티(Solar City) 미래비전, 태양에너지 산업, 체험학습 공간 등으로 구성되어 내년 4월 개관할 계획이다.

광주시는 10일 "태양광과 태양열, 수소 연료전지 등 신재생에너지 알리고 체험할 수 있는 상설 전시관이 조선대와 광주 과기원 등 2곳에 건립된다"고 밝혔다.

조선대 태양에너지 교육홍보관은 들어설 전시관(11억원)은 340m² 규모로 홍보관 개요, 솔라시티(Solar City) 미래비전, 태양에너지 산업, 체험학습 공간 등으로 구성되어 내년 4월 개관할 계획이다.

광주과기원 내 지역에너지 센터에 들어설 전시관은 실내 홍보관(1천m²)과 실외전시관(3천300m²)으로 조성되며 50억 원을 들여 2009년 완공된다.

/김주정기자 jjnews@kwangju.co.kr

“문화전당 주변에 무등산·광주천 물 흐르게”

■ 전남대 전승수 교수 세미나서 주장

“녹색 이미지 걸맞는 친환경 사업”

무등산과 광주천의 물을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주변에 흐르게 하자고 제안됐다.

전남대 지구환경과학부 전승수 교수는 10일 '광주환경운동연합'(공동의장 임낙영) 주최로 동구 금남로 아시아 문화 중심도시 홍보관에서 열린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물순환 도입 검토와 방안' 워크숍에서 "아시아문화전당 주변에 무등산과 광주천 물을 흐르게 하는 물순환체계를 조성하자"고 제안했다.

아시아문화전당 주변 곳곳에 물길

을 만들고 분수대를 설치한 뒤 여기에 필요한 물은 무등산과 광주천 등지에서 공급하자는 것이다.

전 교수는 "무등산 주변의 부분별한 개발로 무등산에서 시작된 광주의 '녹색'이 도심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며 "도심엔 '녹색'이

미지에 걸맞는 상징적인 존재가 필요하며, 이게 물 길이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무등산과 아시아문화전당 사이에 수압 유지 저수지를 만들어 상류에서 정화된 물을 공급하거나 광주댐·각화동 수원지 물을 끌어

오면 된다"며 "물 확보 방안으로 ▲하수처리수의 재이용 ▲주안암과 여타 저수지 용수 ▲빗물·지하철 역사(驛舍)의 지하유출수의 이용 ▲광주천 상류지역에 소규모 습지조성 등의 방법도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스페인 알罕브라 궁전 ▲코르도바 알카자르 정원 ▲독일 프라이부르크 유수로 등을 예로 들며 "도심 물순환 체계는 도시를 아름답게 하는 친환경적인 사업"이라고 소개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광주지하철 주부명예기자단 본격 활동

이용 소감 신문에 기고

광주지하철 주부명예기자단이 10일 광주도시철도공사에서 위촉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주부 명예기자단은 앞으로 지하철 이용정보, 미답, 개선사항 등 일상 생활에서 지하철을 이용하며 느낀 점 등을 도시철도공사 사보나 주

요일간지 등에 기고하게 된다.

박순주 주부 명예기자단장은 "가정주부의 꿈꾸는 눈으로 지하철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소식들을 시민들에게 전송하게 전하겠다"고 말했다.

오후원 도시철도공사 사장은 "주부 명예기자단의 의견을 지하철 운영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김주정기자 jjnews@kwangju.co.kr

생 활 안내

신 고

교통안내	• 가정법률상담소 보건복지부법률상담센터 671-4050 광주YMCA 527-0011	• 학교폭력 국방위기 112 전남경찰청 226-0112
철도안내	1544-7788	전남경찰청 233-2828
대한항공	222-2000	국민안전 1388
아시아나항공	221-6300	• 24시간 청소년상담 국세청 1588-0060 여성긴급 국민안전 1366 여자청소년기동대 363-0155
한국도로공사	1588-2505	광주여성의 전화 363-7739
상 담		• 범무민원상담 광주YMCA 1588-9090 광주 남성의 전화 673-9001 국민안전 1391
• 당직번호(11일) 박용기 228-0022		• 소비자 상담 광주 YMCA 524-5400 주부교실 232-0643-4 국민안전 1389
• 법무사회 법률상담(11일) 송승주 370-0600		• 경찰 369-9881 국민안전 1389

이처럼 주차 단속건수가 증가한 것은 전국체전 개최를 앞두고 광주시가 도시환경 정비의 일환으로 단속을 강화하기로 해 각 구에서 경쟁적으로 단속에 나섰기 때문이다.

하지만 대표적 주차 민원 발생지역인 서구 상무지구와 북구 전남대 후문, 일곡지구 등은 불법 주정차가 여전히 단속이 걸돌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